김세영, '손베리 크리크' 우승

31언더파로 LPGA 신기록 세워
1년 2개월 만에 통산 7번째 선두
양희영은 20언더파로 공동 3위
고진영 · 최운정은 공동 7위에

김세영(25)이 9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오나이다의 손베리 크리크 앳 오나이다 골프장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손베리 크리크 LPGA 클래식' 4라운드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72홀 31언더파 257타. 김세영(25)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역사상 최고의 스코어 카드를 적어냈다.

김세영은 9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오나이다의 손베리 크리크 앳 오나이다 골프장(파 72)에서 열린 '손베리 크리크 LPGA 클래식'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7개 잡아내 7언더파 65타를 기록했다.

1라운드 9언더파, 2라운드 7언더파, 3라운드 8언더파, 4라운드 7언더파의 놀라운 성적을 올렸다. 최종합계 31언더파 257타를 친 김세영은 여유있게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지난 2017년 5월 로레나 오초아 매치플레이에서 우승한 김세영은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통산 7번째 LPGA 투어 우승을 차지했다.

김세영은 2002년 '스탠더드 레지스터 핑'에서 아니카 소렌스탐이 적어낸 72홀 최저타 기록(27언더파 261타)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김세영은 전날 54홀 최저타 타이기록(24언더파)을 작성하기도 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무대에서도 '72홀 31언더파'는 한 차례밖에 없었다. 어니 엘스(남아프리카공화국)는 2001년 메르세데스 챔피언십에서 31언더파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김세영은 4라운드에서도 버디 행진을 펼쳤다. 날카로운 아이언샷과 안정된 퍼트가 돋보였다. 4라운드에서 그린적중율은 94%에 달했다.

1번 홀을 버디로 시작한 김세영은 5, 6, 9번홀에서 연달아 버디를 잡아내 절정의 컨디션을 자랑했다. 김세영은 후반에도 3타를 줄여 경쟁자들을 따돌렸다.

카를로타 시간다(스페인)는 4라운드에서 8타를 줄이며 김세영을 추격했지만, 역부족이었다. 22언더파 266타로 준우승에 머물렀다.

양희영은 이글 1개 버디 5개,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로 4타를 줄여 최종합계 20언더파 268타로 공동 3위에 올랐다.

고진영(23)과 최운정(28)은 17언더파 271타를 기록해 공동 7위에 이름을 올렸다.

/뉴시스

"향후 LPGA 투어 참여해 세계랭킹 1위 달성하고파"

호원대 강재이씨, KLPGA 입문

호원대학교 (총장 강희성) 강재이(스포츠경호학과 1년)씨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프로골퍼로 입문했다.

강재이씨는 중학교 2학년 여름부터 골프를 시작하여 꾸준한 노력과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6월 21일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 입문하게 되었다.

강씨는 중학교 2학년 때 골프를 시작해, 꾸준한 노력의 성과로 고등학교 3학년 한국중고골프연맹회장배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호원대학교에 입학 후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며 이번 결과를 낳았다.

강씨는 "손목부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스포츠경호학과 교수님들의 응원과 격려 및 가르침을 주셔서 이러한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리고 항상 묵묵히 저의 뒤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끝으로 강씨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여 운동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만큼 해냈을 때의 보람도 클 것이다."며, 앞으로 세계적인 대회인 LPGA투어에 참여해 세계랭킹 1위를 바라보며 뛰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김진성 기자

추신수, 생애 첫 MLB 올스타전 출전

'추추 트레인' 추신수(36 · 텍사스 레인저스)가 2018 미국 메이저리그(MLB) 올스타전에 출전한다.

한국인으로는 박찬호, 김병현에 이어 세 번째 올스타전 출전이며, 한국인 야수로는 처음이다. 동양인 야수로는 일본의 스즈키 이치로, 마쓰이 히데키 이후 세 번째다.

MLB 사무국은 9일(한국시간) 2018 미국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 출전할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추신수는 아메리칸리그(AL) 외야수 부분 후보에 선정됐다. 추신수와 함께 아메리칸리그 외야수 후보로 뽑힌 선수는 총 4명이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마이클 브랜틀리, 시애틀 매리너스의 미치 해니거,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조지 스프링거가 이름을 올렸다.

추신수는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추신수는 지난 8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의 코메리카 파크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원정경기에 47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했다. 이는 텍사스 구단의 단일 시즌 최장 연속경기 출루 신기록이며 1993년 홀리오 프랑코가 세운 기록을 넘어섰다.

텍사스 구단은 추신수의 출루 신기록과 함께 커리어 통산 첫 올스타 출전 소식을 전했다.

한편 미국 메이저리그 올스타 팬 투표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 투표는 MLB 사무국은 공식 홈페이지 MLB.com을 통해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는 수요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올해로 89회째를 맞는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은 오는 18일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스 파크에서 개최된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정헌율 익산시장, "행정역량 전국체전 준비체제 전환"

정헌율 익산시장이 최근 '2018 전국체전 D-99일 전북도민기념행사'에 참석, "익산시의 모든 행정역량을 전국체전 준비체제로 전환한다"고 선언한 데 이어 익산시 공무원들에게 완벽한 체전준비를 독려했다.

정 시장은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각 부서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전국체전준비 업무를 꼼꼼히 챙기고 점검, 완벽한 체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체전기간 "익산을 방문하는 선수단과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도심환경정비, 불법노점상 및불법광고물 정비, 가로경관 조성 등 추진해 다시 찾는 익산을 만들자"고 말했다.

시는 체전 기간 재래시장을 활용한 야시장개장과 전라예술제, 한국문화예술대제전, 천만송이국화축제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체전과 연계하여 스포츠뿐 아니라 볼거리가 풍성한 문화체전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북한선수단 등을 초청, 남북화합 평화체전은 물론 세계가 주목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문체부 등과 지속인 협의를 통해 준비 중에 있다.

한편 제99회 전국체전(2018.10.12.~18.)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2018.10.25.~29.)은 개 · 폐회식이 열리는 익산을 중심으로 전주, 군산, 완주 등 전북도내 14개시 · 군에서 분산해 열린다.

또한 전국체전은 모두 47개 종목 선수와 임원 등 3만여 명이 참가하며 주 개최지인 익산시에서는 개 · 폐회식을 포함 12개 종목(육상, 야구 · 소프트볼, 복싱, 펜싱, 보디빌딩, 배드민턴, 축구, 배구, 검도, 철인3종, 볼링, 에어로빅)이 열리며 전국장애인체전은 모두 26개 종목, 선수와 임원 등 7,000여 명이 참가하며 주 개최지인 익산시에서는 개 · 폐회식을 포함 5개 종목 (육상, 탁구, 배드민턴, 축구, 론볼)이 열린다.

/익산=우병희 기자